3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86

개봉박두! 양양 웰컴센터_3월 준공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 중이다.

COVER STORY

봄을 깨우는 홍매화
사진 : 양양군SNS기자 안영국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 286호

| 발행일 2019년 3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86

CONTENTS

의기양양

4 **뉴스 브리핑**
4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열려
5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수 사업 추진
6 평일 외출 확대, 군 장병 유치에 나선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7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홈페이지 사업소 및 단위사이트 통합시스템 구축
8 양양군청 김진수 주무관, 대통령상 수상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9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0 **의정소식**
의원 간담회 개최

희망양양

12 **기획취재** 사계절 즐기는 서핑,
'서프시티(surf city) 양양' 원년을 기대하다
14 **ISSUE & PEOPLE**
양양시장상인회 지달호 회장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의 3.1만세운동

오감양양

18 **SNS 속 양양** 봄 향기 가득한 양양을 만나다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읍 사천리
22 **맛있는 양양여행**
양양 봄 바다에서 꼭 맛봐야 할 바다나물 3대천왕

열린양양

24 **책이야기** 철학, 영화를 casting하다 / 이달의 신간
25 **정보꾸러미** 이기최고자니/ 추천 일자리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28 **공익광고**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그날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3 · 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열려

우리군은 100주년 3.1절을 맞아 유족 등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군민 자긍심과 화합을 일깨우는 추모제 및 기념식을 거행했다. 양양지역은 기미년 일제에 항거해 전국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역사적인 고장으로 1919년 4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개된 만세운동에 1만 5천명 이상이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던 함홍기 열사를 비롯한 34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충열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전통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양양유도회가 집례하는 제례봉행에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초헌관으로, 유족대표인 함상균씨(열사 함홍기의 증손)가 아헌관으로, 고제철 양양군의회의장이 종헌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충열사 추모제 봉행을 마친 오전 11시에는 문화복지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인사와 유족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 양양600합창단이 삼일절 노래를 제창,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하며 그날의 외침을 기억했다. 그후 3.1만세운동 유적공원(현북면 기사문리)으로 이동 자유분향 및 헌화의 시간을 가지며 기념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오후 행사로 양양군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100년 전 드높았던 함성을 달리기로 재현하는 100주년 기념 달리기, 함홍기 열사 추모행사인 '꽃과 불'연극공연,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이 열리는 등 양양의 곳곳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군민 자긍심과 화합, 개개인의 역량까지 고취하는 기념식행사들이 이어졌다.

군은 4월4일 양양군청 앞 및 양양중앙로에서 3.1만세운동 100주년 재현행사를 열 것이며, 그 외에도 독립운동 다큐제작, 양양의 3.1운동책자발간, 유공자위패정비, 충열사 정비사업 등 을 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Tel. 033-670-2101

도시계획도로 개설 · 보수 사업 추진

양양읍 송암리 국도 연결도로 등 4개소 2,090m 신설, 기반시설 확충

우리군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22억원의 신규사업비와 38억원의 이월사업비를 투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수공사를 추진한다.

동서 · 동해고속도로 개통 후 차량유입이 증가되는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 (5개소, 2,090m)과 기존 도로 정비 (5개소, 2,251m)를 추진하게 된다.

신설되는 구간은 국도44호선과 국도7호선을 연결하게 되는 양양 중로2-9호선 사업과, 물치 교회 인근 도로 2개 구간이며,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물치반점~로터리공원간, 내곡리 마을회관~하이팰리스아파트 입구, 현석상가~해오름아파트 구간을 금년 내 마무리 하게 된다.

국도44호선과 국도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은 약 1.2km이며 시내를 거쳐 이동하는 시외버스 및 차량들을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양양종합터미널 이전 위치와 바로 연결되도록 계획되며, 올해부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며 사업은 2020년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추진된 내곡리 도로의 경우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우선 보상이 완료된 구간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모노골 탐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44호선 교량 하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며, 향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내곡리 마을회관까지 잔여 구간과 종합운동장 앞 군도3호선과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도로 5개소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으로, 우선 양양초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약 600m에 걸쳐 1차로 확장을 추진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일부 구간에 전선지중화와 소공원 1개소도 조성하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장날 및 각종 행사 시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제방도로 중 양양교~서문교 773m 구간과 문화복지회관 주변 130m 구간에 대하여 1차로 확장을 추진하며, 이 구간 사업이 완료되면 임천리 교차로부터 양양대교를 잇는 제방도로 구간의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앞 이편한아파트 진입도로부터 청곡리 군도3호선까지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서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죽도해변의 인근 도로 398m의 확장과 주차공원 4,798㎡도 금년 상반기 내 모두 마무리 하게 된다.

우리군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Tel. 033-670-2160

평일 외출확대, 군 장병 유치에 나선다

TF팀 구성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우리군은 군장병 평일 외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군부대 장병들이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군장병 유치에 발 벗고 나선다.

군은 국방 개혁 2.0 일환으로 군부대 장병들의 평일 외출제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세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소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으로 군장병 만족도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군에 주둔하는 대대급 이상 군부대는 10개 부대로서, 휴가자 및 경계 근무자를 제외한 실제 외출 예상 인원은 1일 평균 341명,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62억여 원(연간 1인 5만원 기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중 군장병 평일 외출제 전면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연중 상시 분야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부서별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TF팀의 주요 임무는 장병 외출 및 귀대 시 교통 대책, 외출장병 할인업소 지정 및 서비스 마인드 함양 대책,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면제 및 감면, 군 장병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작

은 영화관 조기 개관 및 상영 시간 탄력적 운영, 군장병 서핑 무료 체험 및 할인 방안 등을 모색해갈 방침이다.

한편, 102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장병들은 다양한 음식 메뉴, PC방 등 장병들이 자주 찾는 업소들의 시설 확충 및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개선과 외출 후 귀대 교통 대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Tel. 033-670-2221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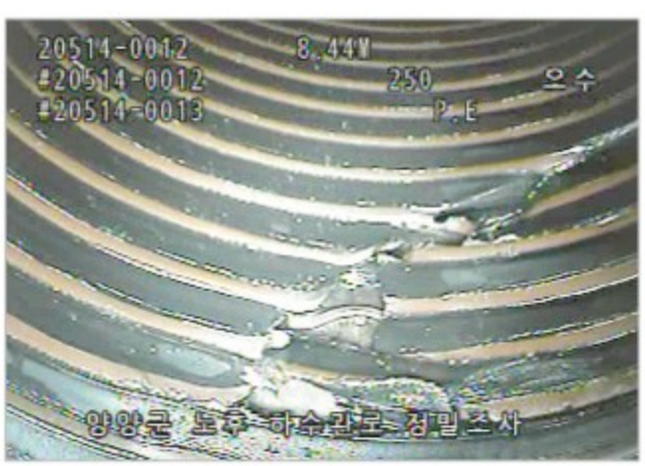
2020년까지 사업비 7,176백만원 투입

우리군은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증가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5년에 사업비 3억 5천여만원을 들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하수관로 69km를 대상으로 CCTV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인 양양읍, 현남지역에 관로 파손,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한 하수관로 7.5km에 대해 총사업비 7,176백만원(국비 3,588백만원 지방비 3,588백만원)을 투입해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은 2018년 ~ 2020년까지 3년간으로 지난해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재원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올해 4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따른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양양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이 혼잡한 구간은 비굴착공법을 적용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하수관로에 의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배제 기능 개선과 도시침수예방 등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Tel. 033-670-2526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확대 설치 운영

민원친화형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우리군은 기존에 운영 중인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상반기 중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은 민원친화형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대형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로 연속지적도, 도로명주소, 토지, 건물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인 접근 시 근접감시센서가 자동 감지되어 열람화면으로 전환되는 등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존에는 지적 정보와 관련한 행정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서면 신청 또는 대면 방식으로 열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 불편 및 행정 효율성 저하, 토지 정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다수의 확인서 발급 · 신청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청 민원실에 이어 비교적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현남면사무소와 강현면사무소에 지난 2018년 3월부터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주민 및 민원인의 반응이 좋아 사업비 4천 4백만 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내로 나머지 4개 읍면에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화면 시에 홍보영상이 화면에 표출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양양군 주요 행사와 축제, 공지사항, 홍보물 등을 영상과 이미지로 편집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양양읍과 강현면 등에 설치되어 나머지 4개 읍면으로 확대 설치하려던 DID시스템을 대체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DID시스템 구입 예산의 절감, 청사 환경 정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확대 설치로 인해 도로명 주소, 토지 정보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허가민원실 지정정보담당 Tel. 033-670-2153

홈페이지 사업소 및 단위사이트 통합시스템 구축

5종의 단위업무별 홈페이지 통합

우리군은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단위별 홈페이지를 행정홈페이지와 통합하여 웹사이트 최적화를 추진한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센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등 5개 사이트를 행정홈페이지와 통합 구축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 관리자 기능개선, 편리한 접근성 제공이 이루어진다. 특히 행정홈페이지는 모바일용 개발을, 단위사이트는 반응형 웹 적용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정보검색이 쉬워진다.

지난 2월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사업 결과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일원화된 통합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표 홈페이지 통합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별 정보 콘텐츠가 검색 가능하도록 연동 · 연계되는 기능이 구축되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적용한 서비스 구성과 콘텐츠 현행화, 로딩 속도와 접근성 등 사용자 입장에서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서비스가 구성되도록 했다.

이번에 오픈한 통합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운영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정보 콘텐츠의 유기적 통합으로 공공정보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웹사이트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전망이다.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우리군 대표 홈페이지를 찾는 사용자들이 다양하고 안정적인 최신의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Tel. 033-670-2460

양양군청 허가민원실 김진수 주무관, 대통령상 수상 영예

2018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에서 공공행정 분야 대통령상 수상

우리군 허가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 주무관(사진, 41세)이 2018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에서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허가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 주무관은 2005년 현남면 사무소를 시작으로 공직에 임용된 이래 세무회계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는 동안 주민 및 직원 간의 화합과 복지를 위해 고충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하는 등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남에게 주목받기 보다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밝은 얼굴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결점을 찾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한 업무 연찬을 하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한 점이 동료 직원들에게 모범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주무관은 "공직을 수행하면서 평생 받을까 말까한 큰 상을 이렇게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부끄럽다"며 "영예로운 수상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김진수 주무관은 2005년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13년간 좌우명인 '초일심 최후심'의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임서현씨와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문의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Tel. 033-670-2232

불법 주 · 정차 차량 단속이 강화 됩니다

우리군은 보행자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 · 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도로 위의 불법 주 · 정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도 통행이 번잡한 주요 도로변이나 보행자 도로 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차량 및 통행자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시내를 관통하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 등을 비롯해 덤프 트럭의 운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주 ·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군 차량등록대수는 2016년에 13,694대, 2017년 14,302대, 2018년말 현재 15,016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의 100%가 고정형 CCTV에 의해 적발한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는 2016년 934대, 2017년 1,623대, 2018년 2,280대로 나타나 3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양양읍 시내 불법 주 · 정차 단속용 CCTV는 8대가 설치

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한 양양읍 시내 이면도로와 면지역 중 불법 주 · 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이 어려운 지역을 단속하기 위해 올해 차량 탑재형 무인 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 ·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Tel. 033-670-2170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눈이와도 걱정 없어요~!! (2. 1)
2. 안녕 2018평창올림픽~! 올림픽1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2. 14)
3. 걷기생활의 실천으로 건강챙기세요~!(2. 18~20)
4. 연어야 다시 만나자, 제8회 어린연어보내기 생태체험 행사
5. 손양면 누림행복센터가 준공되었어요.(2. 22)
6. 꿈꾸는 어린이를 응원합니다.
   한전 양양지사, 꾸매그린 지역아동센터에 우쿨렐레 지원(2 .21)
7. 나눔이 있는 설 명절, ㈜한국청과 양양군 위탁가정에 선물 후원(1. 29)

의원 간담회 개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오색삭도 설치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중간 점검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지난 2월 11일과 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7개의 안건을 놓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2월 11일 개최된 군 자치행정과와의 간담회에서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강원도 양양군-경기도 안양시 우호교류 도시체결 관련 검토보고, 종합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 계획,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와 양양군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한 개 마을당 1,500만원~2,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양양군-경기도 안양시 우호교류 도시체결 검토보고에서는 국내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 체육, 농산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세밀한 검토를 통해 양양군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양군이 새로 구축.운영하게 될 종합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쇼핑몰을 통해 양양군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월 18일에는 군 도시계획과, 오색삭도추진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향후 추진계획 등 2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의원들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양양군의 방향을 납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된 2건의 소송이 승소하는 등 최근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만큼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3.1만세운동 100주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함홍기 열사, 조화벽 지사 등 우리 조상의 기개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을 넋을 위로하고 3.1절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군민들과 함께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의원들은 먼저 함홍기 열사를 비롯한 34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충렬사에서 추모제를 봉행하고,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제100주년 3.1절 독립유공자 기념식에 참석했다.

고제철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양양은 작은 도시임에도 전국적으로 손꼽힐 만큼 치열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며 "우리는 일본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 두 팔을 잃고 숨진 함홍기 열사와 버선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와 퍼뜨린 조화벽 지사의 후손이다. 제100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양양과 우리 조상의 기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현북면 기사문리 3.1만세운동 유적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분향과 헌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양양군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석하여 군민들과 함께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다.

양양군의회는 격렬한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양양의 가치를 발굴하고 전파하는데 군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양양군의회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정진할 것이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사계절 즐기는 서핑, '서프시티(surf city) 양양' 원년을 기대하다

양양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송이'와 '연어'였다. 그리고 이제는 '서핑'이다. 양양지역 해변의 길이는 56km에 수심이 비교적 얕고 평평하며, 파도가 적당해 서핑 입문 코스뿐만 아니라 중·상급 코스도 가능해 부산 · 제주와 함께 국내 3대 서핑 스폿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전국의 절반 이상의 서핑 업체가 양양지역 해변에 자리하면서 '서핑의 성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서핑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와 접목하는 제도적 · 행정적 장치는 부족하다. 올해 '서프시티(Surf City) 양양'의 원년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이다.

서프시티(Surf City) 양양

대한 서핑협회에 따르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2014년 4만 명에서 2015년 5만 5천명, 2016년 10만 명, 2017년 20만 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서핑 스폿으로 꼽히는 양양군의 죽도·인구·동산포 해변 등에는 주말마다 1천 여 명이 방문하는 서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구나 여름 한철에만 반짝 찾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연간 7만~10만여 명의 서퍼들이 양양을 찾는다. 전국의 서핑숍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총 61개의 서핑숍이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니 서핑이 양양에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교통망 개선이 한 몫 하면서 최근 양양에 서핑숍, 엔터테인먼트(영화, 드라마, CF 제작 등), 축제뿐만 아니라, 서핑 도구 제조·요리·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 서핑 문화가 새로운 지역 문화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관광 스포츠·레저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며, 서핑 지역의 기반 시설 정비 등의 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죽도해변을 배경으로 영화제작

서핑문화, 도시 이미지를 바꾸다

양양은 서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앞으로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서핑과 연계된 기업·기관·단체'와 '서퍼와 관광객'이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돼 서핑 문화가 경제·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핑 페스티벌 확대, 서핑 해양레저 특화사업, 양양군 서핑 선수단 창단, 가족과 함께하는 서핑 교실이 추진되며, 산업융·복합화 전략에는 서핑 용품 제작소 유치, 투자 선도 지구 지정, 4차 산업혁명 연계 스마트 특구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미 그랑블루 페스티벌 & 영화제가 열리고, 죽도해변을 배경으로 서핑 영화가 제작되는 등 서핑은 레저 스포츠로, 또 지역 문화로 성장해 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서핑을 통해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핑이 주는 활력과 도전적인 이미지로 양양군은 젊은 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구 유입을 통한 양양지역의 농·산·어촌, 특히 어촌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기반시설 충족돼야

한겨울에도 서핑을 즐기는 풍경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낯설고 신기하다. 특히 여름 한철 외에는 조용하던 해변 마을이 사계절 내내 북적이는 풍경 또한 새로운 문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다 보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이 부족해 지역에서는 고민이 많다.

시변리에서 서핑업에 종사하고 있는 황병권씨는 "서핑 산업의 고객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즐깁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서핑을 즐기는데 죽도해변은 4계절 내내 서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죠. 주변 시설과 환경이 더 갖춰져 서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죽도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영화가 제작되었다. 그만큼 죽도해변 등 양양의 서핑 문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핑이 일시적인 해양레저스포츠로 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등을 보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글 : 편집부 / 사진제공 : 시변리 황병권〉

사계절 즐기는 서핑

ISSUE & PEOPLE 양양시장상인회 지달호 회장

시장이 살면 양양이 살아납니다

4일, 9일이 들어있는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양양시장은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붐빈다. 복잡한 시장 골목 안에서 걸음마다 멈춰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 양양시장상인회에 지달호 회장이다. 추운 날씨에 조금은 움츠렸던 전통시장은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생기가 움트기 시작했다.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재임한 지달호 양양시장상인회장의 열정 가득한 시장 이야기를 만나본다.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해결사

"아이고, 회장님. 여기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회장님, 오늘 날이 흐려 그런지 불빛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시장 안을 잠시 돌아봤을 뿐인데 걸음마다 인사하랴, 상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랴,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하기도 바쁘다. 양양시장상인회장이 된지 올해로 5년차인 지달호 회장의 일상이다.

2015년 상인회의 대표가 된 이후로 지달호 회장은 두 배로 바빠졌다. 2001년부터 운영하던 숯불갈비집은 가족들에게 맡겨놓고 시장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양양시장은 정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시설현대화,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편리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 취임하던 해에 시작한 산나물 축제는 올해 5회째 열릴 예정이며, 시장 곳곳에는 소화기, 소화기구함 등 안전에도 대폭 신경을 썼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시장연립주택에 살며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상인회사무실로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상인회장으로 일을 하고 저녁엔 부인에게 맡겨둔 고깃집으로 다시 출근한다.

"상인회장이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시설 관리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문제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장날에는 환불시비 같은 일이 생기면 저를 찾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제 일이죠. 또 서울이나 전국으로 다니면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다닐수록 드는 생각이 우리 시장만한 데가 없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스위스 알프스 못지않은 내고향 양양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양양시장은 지자체내 단일시장이면서 오일장으로는 강원도 최대 규모, 전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규모를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설악산과 오대산, 동해바다와 남대천까지 품고 있는 환경 덕분에 특산물이 넘쳐난다. 자연히 교환경제가 발달하고 통하는 길이 많아 장꾼들이 많이 모인다.

"양양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멀리 대청봉이 보이고, 속초, 인제, 강릉 등에 둘러싸여 있고 동해바다와 남대천까지. 양양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데다 공장시설도 없어 아주 청정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못지않아요. 제주보다 살기 좋고 살면 살수록 정이 드는 곳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살던 지달호 회장은 1982년 아내의 고향인 양양에 자리를 잡았다. 10여년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 후 장모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양양으로 왔다. 이후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했다. 출장 차 다녀온 스위스 알프스의 기억은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양양과 다르지 않다.

"건설회사 해외파견을 마치고 와서부터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일 장사를 거쳐서 18년 전부터 고깃집을 하고 있으니 장사경력이 제일 오래됐네요. 뭐든 할 때는 제대로 하자는 성격이라 이런저런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장이 살아야 양양이 산다

1986년 완공된 양양시장 건물은 1층에 상설 점포가 64개, 인근까지 하면 110개 정도의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오일장에는 지역 상인들과 외지상인들을 포함해 300명 정도의 상인들이 모여든다. 양양에서 나는 농산물, 임산물, 해산물 등을 우선으로 판매하고 직거래까지 헤아리면 양양시장은 지역경제의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트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시장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지달호 회장의 말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시장에는 인정이 있습니다. 평균연령 67세 이상의 상인들은 바로 옆집에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과 다름없는 그 분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양양시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시장 안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이제 봄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찾아오겠지요. 양양시장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전통시장을 빼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장 안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다. 지달호 회장의 일상은 오롯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그 물건을 사는 단골손님들, 사람 사는 냄새가 진득하게 배어나는 양양시장의 활기찬 봄을 기다린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의 3 · 1만세운동
곳집과 태극기 제작

1919년은 3 · 1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4월 4일 양양 장날을 기하여 일어난 3 · 1만세운동은 이석범(李錫範) 선생과 조화벽(趙和壁) 지사가 몰래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단초가 되었다.
설초 이석범 선생은 3월 말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례하고 독립선언서를 몰래 가져왔고, 조화벽 지사는 개성 호수돈여학교 유학 중에 개성 만세운동 결사대원으로 적극 참여하였으며,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버선목에 숨겨 원산을 거쳐 양양의 대포항으로 귀향하였다.
이렇게 3월 말에 입수한 독립선언서가 발단이 되어, 그동안 독립을 염원하던 지역유림, 신문화 교육을 받은 양양보통학교 졸업생, 양양감리교회 청년 지도자들이 농민들과 연합하여 극비리에 준비하여 양양의 만세운동은 시작되었다.

거마리 전경

구장(이장) 집이나 서당에서 태극기를 만들다

4일 장날의 만세군중에게 배포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더구나 일본 경찰의 감시가 삼엄한 가운데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밤에 임천리에서 일부가 발각되었다면 우리는 그때의 절박했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면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구장 집과 서당에서 만들기가 한창이었는데, 임천리에서 이석범 선생의 주도하에 이교완(李敎完), 이교정, 이건충 등 몇 집에서 만들다 장날을 하루 앞둔 3일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마을주민 20여 명이 체포되고 태극기 374매와 등사기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면은 상평리 박춘실(朴春實)이 임천리에서 만든 종이 태극기를 이교학으로부터 전달 받아 집에서 수기로 만들었고, 현북면은 상광정리 김종대 집과 하광정리는 구장인 김진혁 집에서, 말곡리는 문종석 집에서, 도리는 김재한 집에서 각각 만들었다. 강현면도 구장 집과 서당 훈도였던 김철기(金鐵起 · 독립유공자)의 서당에서 만들었고, 도천면은 중도문리 이종국(李種國 · 독립유공자), 이종황의 집에서, 물치리는 김두영(金斗榮 · 독립유공자), 박제범, 김대순 등이 태극기를 만들며 계획에 참여하였다.

'농자천하지대본'의 깃발을 들고 나오다

양양면은 양양감리교인이며 면사무소 급사였던 김필선(金弼善 · 독립유공자)이 조화벽 지사에게 받아 김계호(金啓鎬 · 독립유공자), 김주호, 김재구, 김규용 등 동료들과 면사무소의 등사기로 종이와 옥양목으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다.

그리고 거마리는 김종태(金種台:2018년 8월, 독립유공자 신규신청) 집에서, 감곡리는 이관진(李寬鎭 · 독립유공자) 주도하에 이상온 집에서 만들었다.

손양면에서는 가평리와 왕도리에서 제작하였으나, 주리와 우암리는 준비가 부족하여 태극기 대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깃발을 들고 백가영감이 농악을 울리며 만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옛 성내리 곳집

상여를 보관하던 외딴 곳집에서 만들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자, 다급해진 임천리 최인식(崔寅植)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거마리 김종태 집으로 피신하여, 각 마을 책임자들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고 대책을 세웠다.

그러자 일본 경찰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자, 비상 대책으로 인적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 곳이 바로 곳집[喪具保管所]이었다. 거마리는 김종옥 집 뒷산 외진 곳집으로 정하였고, 또한 성내리 뒷산에 있는 곳집(성내리 47번지)에서도 밤새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이때 조화벽 지사도 86매를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짐작케 한다. 이렇게 밤새워 만든 태극기를 다음날인 4일 장날에 배포하여 전군민이 참여한 민족의거 운동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글 · 사진 : 문화원〉

현재 거마리 곳집

현재 성내리 곳집 터

봄 향기 가득한 양양을 만나다

그것은 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겨우내 비어있던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져나고,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봄새싹이 움터 오르는 것을 보면 말이다. 봄기운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한껏 들떠 양양의 봄날을 누비러 떠날 준비를 한다.

낙산사 복수초

남대천 목련꽃

포매리 매화꽃

놓칠 수 없는 봄날의 순간 양양의 꽃길

여기저기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 낙산사의 복수초를 시작하여, 홍매화, 곤이어 망울을 터트릴 하얀 목련, 그리고 흐드러지게 피어날 벚꽃까지 양양의 발길 닿는 곳은 어디든 꽃길이다. 특히 4월이면 양양남대천 둔치길을 찾게된다. 양양대교와 낙산대교를 잇는 도로 양쪽에 심은 500여본의 벚나무가 봄날의 진풍경을 이루고 있다. 3Km의 직선도로를 따라 이어진 탐스러운 벚꽃 행렬을 따라 걷다보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더뎌진다.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며 꽃향기를 가슴깊이 품을 수 있다. 야간의 조명과 함께 어우러진 벚꽃 길은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뭉개구름처럼 피어오른 벚꽃에 둘러싸여 한층 낭만적인 공간을 이루는 현산공원과 머리위로 휘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오색의 족욕체험장도 양양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이다.

터져 오르는 봄 새싹, 걷고 싶은 양양의 숲길

양양의 봄에서는 녹색 냄새가 난다.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봄날의 냄새를 맡고 싶다면 모노골 산림욕장 소나무 숲길로 떠나보자.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사이 힘차게 올라온 봄 새싹과 인사하며 걷다보면 운동시설, 휴양 공간, 모노골 샘터에서는 잠시 앉아 숲을 즐길 수도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양양의 봄 전경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곳도 있다. 바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 위치한 구탄봉이다. 산허리를 타고 돌기도하고, 작은 개울을 지나기도 하는 구탄봉 산책로는 걷는 재미와 숲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봄이면 생각나는 파릇파릇한 새싹부터 개나리, 진달래, 노란 생강나무 꽃까지 양양의 봄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곳이다. 정상인 구탄봉 전망대에 오르면 양양시가지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아 갈 수 있다.

〈글 · 사진 : 편집부〉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답니다.

SNS속 양양 벚꽃 핫플레이스를 찾아서(2019년 양양 벚꽃개화 시기 : 4월 4일 예정)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읍 사천리(仕川里)

아픔을 딛고 단호박처럼 단단하고 달달하게
주민 취미생활이 소득사업으로 이어져
문화예술로 충만한 마을로 거듭나

사천리 전경

벼슬하던 사람들이 일구어온 사천 마을

조선시대 성종 14년 '대포수군만호영'이 사천리(仕川里) 아랫마을에 있어서 당시 관리들이 사천리에 정착해 살았다. 벼슬하는(仕) 사람들이 내(川)를 이루고 살았다고 하여 '사천마을 - 사래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니 사천리는 관록 있는 마을인 셈이다. 지금은 77명의 주민들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로 하는 소박한 마을인데, 최근 귀촌인들이 선호하는 마을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005년 양양·낙산사 산불로 마을이 큰 피해를 입어 35가구 가운데 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화재 피해를 입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화마(火魔)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복구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 몇 년 새농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알차고 살기 좋은 사천리를 만드는 데 단합하고 있다.

산불 피해 마을이 오색 단호박 넝쿨로 꽃을 피우다

사천리 표지석을 끼고 마을 입구로 들어서니, 볕 잘 받는 마을이 아담하다.2012년부터 '사래마을' 섬김이 박상형(65세) 이장이 마을 일을 맡아 주민들과 단합하면서 마을은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고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큰 아픔을 겪으면서 마을주민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의욕이 떨어져 있었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는 대부분 고령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즐겁게 잘 살기위해 주민 화합의 자리를 만들고,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 사업으로 2015년 새 농촌 도약마을로 선정되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다.

단호박재배

단호박가공

호박넝쿨터널

2016년부터 '사래마을'을 '단호박 마을'로 가꾸는 것부터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다. 7천 여 평에 단호박을 심고, 250m의 마을길에 호박넝쿨 터널을 가꾸어 8월에 '단호박 축제'를 개최했다. 단호박을 가공해 '단호박 식혜'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품화에 성공하여 양양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양양 송이축제, 연어축제), 비치마켓, 낙산사 행사장 등지에서 홍보·판매를 통해 소득 창출을 했다.
이어 2017년에는 사래마을영농조합을 설립하여 단호박 가공공장과 저온저장시설 등을 갖추어 4계절상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사래마을이 단호박 마을로 알려지면서,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선정되는 경사도 있었다.

도 우수마을 선정

소박한 마을이 아름다운 문화예술 마을로 변신을 꿈꾸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의 주민들이지만 '호박나라 천연공방'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비누, 세제, 화장품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농촌노인사업의 일환으로 '사래마을 서각공방'을 운영해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다. 덕분에 인근 마을 주민들도 공방을 이용하면서 농촌지역의 취미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각자대전'에서 입선하는 영광도 얻었으니 알차고 단단하다는 말은 사천리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서각공방에서 작업하는 모습

서각공방

사천리는 낙산사를 배경으로『삼국유사』에 나오는「조신(調信)의 꿈」의 배경이기도 해서 춘원 이광수가 이 설화를 바탕으로 장편소설 〈꿈〉(1947)을 발표하고, 한국 영화의 거장 신상옥 감독은 영화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화예술콘텐츠를 바탕으로 서래마을 야외 공연장이 완공되면, 마을주민들이 중심(주인공과 등장인물)이 되어 무대연극을 공연하고, 체험장과 판매장 등이 운영돼 관광객들이 체험과 공연을 즐기는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담한 농촌마을인 사래마을의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체험 공연장이 더욱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 봄 바다에서 꼭 맛봐야 할 바다나물 3대 천왕

바다나물을 뜯고있는 모습

고르매 나물 손질

고르매, 쇠털, 누덕나물

제삿날이면 젯상에 올릴'젯메(밥)'를 지어야 하는데, 온통 감자, 콩, 메밀쌀로 지은 잡곡밥이라, 이날만이라도 하얀 쌀밥을 올리고 싶은 효심에, 밥공기 아래에는 잡곡밥을 담고, 위로는 하얀 쌀밥을 얇게 펴 발라 마치 쌀밥인 것처럼 젯상에 올렸던 정선 화전민들의 독특한 제사음식이 있었다. 이를'고깔밥', '공갈밥'이라고 하는데,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며 새파란 보리가 익기를 기다리던 산골 사람들의 꼭 이 맘 때의 풍습이다. 비단, 봄이 올 때 산골에서만 겪었던 헛헛함만이 아니였다. 바다사람들도 한때는 바다 나물을 뜯어다 식구 수만큼 밥을 늘려 먹었던'덧밥'시절이 있었다. 한 시절 고단한 삶의 맛으로 귀하게 즐겨 먹어 왔던 바닷말(바다나물)을 별미 별식으로 챙겨 먹기에 좋은 요즘이다.

점차 보기도 먹기도 어려워지는 봄의 바닷말

삶고 데치고 볶아도, 오금거리는 향이 짙고, 부드러운 단맛으로 100살 먹은 노인도 먹을 수 있어 백세갱(百歲羹)이라 부르는'냉이', 입안에 퍼지는 짙은 향이 오묘한'햇쑥', 알싸한 맛이 미각을 자극하는'달래'를 3대 산나물 천왕으로 꼽는다면, 양양 봄 바다에서의 바닷말 3대 천왕은 고르매, 누덕나물, 쇠털나물이다.

이 나물들을 골고루 한데 섞어 봄볕에 바짝 말린 김 나물을 막 섞은 누더기 같다하여 양양에서는 옛 부터'누덕나물'이라고 불리는데, 좀처럼 보기 드물고, 맛보기 어려운데, 남도지방의 웬만한 김보다 향이 짙고 깊어 양양의 봄 바다가 한 움큼 입속에 들어 온듯하여 족히 양양의 제철 특산물로 자랑할 만하다.

바닷말도 산나물처럼 잘 자라는 갯바위가 따로 있고 한 해마다 풍년과 흉년을 겪는다. 짧고 가늘게 쨀쭘쨀쭘한 '고르매'는 파도가 없는 안쪽에서 피고, 파래와 김은 이보다 한 발치 앞선 물밑에서 돋으니 이에 따라 그 맛의 풍미도 서로 다르다. 소의 털과 같다하여 이름 붙여진 쇠털 나물은 남도지방의 매생이 격으로 매생이는 짙은 녹색이지만, 쇠털 나물은 짙는 홍조색이 다른 점이다. 웃자라기 전에 새싹처럼 부드러운 햇 지누아리도 요즘이 제철이다.

바닷말은 음력 동짓날부터 음력 2월까지가 질감과 풍미가 가장 좋은 때로, 이때를 놓치면 고르매에는 돌가루나 모래가 들어가고, 돌김, 파래, 톳, 쇠털나물은 질감이 억세지고 누렇게 색이 변한다.

누덕나물을 찧고 있는 모습

말린 누덕나물

지누아리

톳나물

국, 부침개, 구이, 튀김도 가능한 양양 봄 바다의 누덕나물

돌김, 쇠털, 파래는 빈 전복껍질이나 억센 철사뭉치를 이용하여 비위를 긁거나 훑어 내듯 뜯어내지만, 이렇게 뜯은 바닷말은 산나물처럼 곧바로 먹을 수가 없이, 공(功)이 많이 들어간다. 집에서든 갯돌에서든 보들보들 해 질 때까지 찧어가며, 모래나 돌 부스러기를 골라내고, 빨래를 하듯, 바닷물을 몇 번이고 부어가며 씻어내고, 행궈 낸 후에 김구이나 국으로 먹을 수 가 있다. 쇠털은 매생이 국처럼 뜨끈한 떡국이나 굴국 등으로 끓이거나, 입맛 없을 때 애피타이저로 노릇하게 부쳐 먹는 부침개로 좋으며, 고르매는 김발에 바짝 말려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거나 살짝 구워 설탕을 뿌리면 제 맛이고, 섞어 말린 누덕나물은 기름장을 솔가지에 묻혀 바르며 굽는 방법이 양양의 옛 방법으로 바닷말에서 나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도 일품일미 (一品一味)여서 누가 구워도 입맛 일깨우는데 족히 나무랄 데가 없는 맛이 난다.

부드러운 햇 지누아리는 장아찌로 담궈 두거나, 새콤한 초고추장에 참기름을 두르고 비빔밥 고명으로 제격이고,'보리해둥'이라 불렸던 톳은 데쳐서 된장이나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는데, 보릿고개 시절에는 밥 뜸 들일 때 넣어 톳밥으로 먹기도 했다. 이제는 양양의 봄 바다에서도 점차 사라져 가는 풍미이기에 음력 2~3월까지 부지런히 5일장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는 양양의 바다나물들이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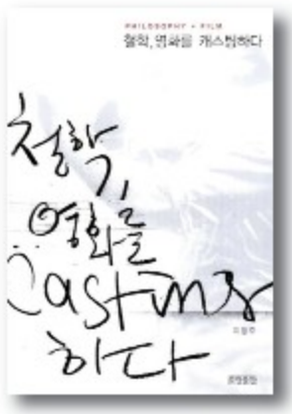
고르매 붙이기

누덕나물 붙이기

책 이야기

"철학으로 영화 보기, 영화로 철학 하기"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이왕주 지음 / 효형출판 / 2005



철학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를 꼽자면 "난해함, 어려움, 소크라테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의 기본적 특성은 어쩔 수 없이 고지식한 학문이라는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은 매우 지적인 활동이고 진리 탐구의 욕구를 자극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보았던 영화의 주제나 각 장면을 해석하며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보고 곧 잊히는 영화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철학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하이데거와 니체를 거쳐 들뢰즈와 부르디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하이데거의 '있음'과 '있는 것'의 의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춤으로 승화해 내는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 알 수 있고, 〈친절한 금자씨〉의 수많은 얼굴은 들뢰즈의 '기계 되기'와 만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영화를 보지 않은 독자들도 영화 내용을 짐작하여 저자의 사고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친절한 설명과 함께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상상을 빌어 인간다움과 행복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영화 속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성찰과 행복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읽으면 좋은[册]

-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김준기 지음, 시그마북스, 2009
- 영화관을 나오면 다시 시작되는 영화가 있다
  김호영 지음, 위고, 2017
-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지음, 어크로스, 2018

책 속 밑줄 긋기 = 『외할머니를 찾아오기 전에 꼬마는 바깥을 거의 알지 못한 채 지내왔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게임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모니터에서 열리는 가상의 바깥뿐이다. 그 꼬마가 산골 마을 외딴집 외할머니댁으로 간다. 엄마의 손에 끌려서 탄 시골행 버스, 그 안의 왁자한 시골 사람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꼬마에게 바깥이 아니었다. 그저 서울의 바깥일 뿐이고, 멍하게 스치는 낯선 것들일 뿐이었다. 』(p. 43)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세계미래보고서 2019

박영숙 외 지음/ 비즈니스북스 / 2018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상하는 미래 기술과 그 발전상을 예측하면서도 단순히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무슨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식 기반의 예측보다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미래를 읽는 눈을 길러주는 이 책을 통해 유익한 통찰을 얻을 것입니다.

코레아 우라

한미경 지음 / 현암주니어 / 2018

이 책은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보낸 11일의 기록을 따라가며 하얼빈 의거를 결심한 배경과 하얼빈 의거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의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전 세계의 언론이 하얼빈 의거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일제가 어떤 이유를 대며 안중근을 불리하게 만들었는지 등 하루하루 치열했던 11일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양양버섯 두부요리 전문점 오두방정

**다섯 종류의 버섯(五)과 두부(豆)의
만남을 통해 사방(方)에서
정(情)이 모여드는 곳'**

양양버섯 두부요리 전문점 '오두방정' 오픈

양양지역자활센터가 일자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섯두부요리 전문점인 '오두방정'을 오픈하였다. 1명의 한식조리사 자격증소지자와 4명의 반찬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총5명의 참여자가 6개월 동안 전문가의 건설팅을 받으며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양양버섯 두부요리 전문점인 '오두방정'은 청정 양양에서 만든 두부와 신선한 버섯을 활용해 맛깔난 지역특화 음식을 선보이고 있으며, 재료비를 제외한 판매수익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주메뉴는 버섯두부전골, 오두방정떡갈비, 버섯두부조림이다. 버섯두부전골은 돌솥밥과 함께 제공되며 2인 2만원, 4인 3만2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Tip – 예약전화: 673-4846 11시~9시까지(월~토)
메뉴: 버섯두부전골, 떡갈비, 버섯두부조림
위치: 양양읍 양양로 159-4 (양양주공아파트 건너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재성정보통신	1명	통신장비설치 · 수리원	08:30~18:00 (주5일)	연2,160만원이상 (협의)
	1명	사무원(캐드원)	09:00~18:00 (주5일)	연2,160만원이상 (협의)
효딤노인복지센터	1명	사회복지사	09:00~18:00 (주5일)	월175만원
	2명	방문 요양보호사	시간협의	시급11,000원이상
푸른하늘환경(주)	1명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09:00~18:00 (주5일)	연2,800만원
일양종합금속(주)	2명	샷시조립 · 설치원	07:30~18:00 (주6일)	월190만원이상 (경력자협의)
㈜해송케이엔에스	1명	회계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75만원
동양산업	2명	금속가공 기계조작원	08:00~17:00 (주5일)	연2,400만원이상
영광전기(주)	2명	전기공사원 (경력자)	09:00~17:00 토요일12시까지 (주6일)	월250만원

여성가족부 양양군

2019년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홈&펫용품핸드메이드창업과정

교육기간
2019. 6. 28 ~ 8. 23 (160시간/1일4시간/13:00~17:00/월~금)
모집기간
2019. 6. 14(금) 18시 까지
모집인원
20명 (창업희망 경력단절여성 우선 선발)

- 신청서류 : 구직신청서, 참가신청서, 취약계층증빙서류, 신분증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증사본(본 센터에서 수료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선발면접 ▶ 최종선발
- 자부담금 : 개강 후 10만원 (단, 취약계층 제외 / 수료시 5만원/6개월 내 취창업시 5만원 환급)
- 교육특전 :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사후관리서비스 지원

새일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인산1길 36, 양양군여성회관 2층
670-2890~3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2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9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실 지역주민 모집

양양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교육 및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업단은 재활용사업단, 새싹사업단, 오두방정사업단, 푸드뱅크사업단, 양봉사업단, 비누공방 사업단이며 일자리지원 및 취업에 관한 상담 등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20세~64세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기 간 : 2019년 상시모집
□ 지 원 : 자활지침에 의하여 인건비지급/ 주 5일근무/ 4대보험가입/
취 · 창업교육 / 사례관리
□ 문 의 : 양양지역자활센터 T.673-4848 /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과
□ 신청대상 :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영예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월 5만원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문 의 : 양양군청 복지과 ☎033)670-2294 및 읍 · 면사무소

2019년 상반기 군민정보화 교육

월별	기 간	접수기간	교 육 내 용
3월	03.04. ~ 03.29. (월,수,금)	02.25 ~ 02.28.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컴퓨터입문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 · 편집 기술 블로그 · 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4월	04.01. ~ 04.26. (월,수,금)	03.25. ~ 03.29.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인터넷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 · 편집 기술 블로그 · 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5월	05.07 ~ 05.31. (월,수,금)	04.29 ~ 05.03.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워드작성(한글)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 · 편집 기술 블로그 · 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6월	06.3 ~ 06.28. (월,수,금)	05.27 ~ 05.31.	(주간) 스마트폰활용, SNS, 컴퓨터활용
			(야간) 스마트폰활용, 사진및동영상 촬영 · 편집 기술 블로그 · 페이스북 콘텐츠 작성법, SNS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 원 : 28명(선착순) * 소수 신청시 취소 될수 있음
□ 시 간 : (주간반) 10:00~12:00 / (야간반) 18:30~20:30
□ 신청방법 : ①인터넷 :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 [분야별정보]-[교육]-[교육신청] ②전 화 : 033-670-2116

만75세 어르신 치매조기선별 전수조사 안내

□ 기 간 : 연중(3월~10월 집중조사기간)
□ 대 상 : 만75세 어르신(1944년생)
□ 장 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
□ 내 용
– 치매선별용간이정신상태 검사
– 검사결과 인지저하자 및 치매의심증상자 정밀검진 의뢰(무료)
– 치매예방 교육 및 상담
□ 문 의 :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033)670-2565, 2854

양양군치매안심센터 「기억학교」 운영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낮시간 동안 돌봄제공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쉼터(기억학교)" 운영을 합니다.

□ 기 간 : '19.3.4.(월) ~ '19.12.31.(화)
– 이용시간 : 월 ~ 금(오후 2시~5시)
□ 장 소
– 상반기 : 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쉼터)
– 하반기 : 신축 치매안심센터 쉼터
□ 대 상 : 경증 치매환자
□ 운영내용 : 돌봄제공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 문 의 : 보건소 정신건강담당 ☎033)670-2565, 2968

양양군 농어촌버스 운행시간표 및 버스노선도

양양 ◄► 오색 (강원여객)

양양발	오색발
07:00	07:35
08:00	08:35 (속초행)
09:00	09:35
10:00	10:35 (속초행)
11:30	12:10 (속초행)
13:00	13:35
14:30	15:05
16:00	16:35 (속초행)
18:00	18:35
19:00	19:35

양양 ◄► 지경리 (강원여객)

양양발	지경리발
07:00	07:50
13:10	14:00
17:30	18:20

양양 ◄► 화일리 (강원여객)

양양발	화일리발	상복발
07:30 (상복행)	08:15	08:05
09:50	10:05	
10:50	11:05	
12:30	12:45	
14:50 (상복행)	15:35	15:25
16:40	16:55	

양양 ◄► 어성전 (수리) (강원여객)

양양발	어성전발	하조대발
07:20	07:50	08:05
10:20	10:50	11:05
13:20	13:50	14:05
16:00	16:30	16:45
18:40	19:10	19:25

양양 ◄► 어성전 (하조대) (강원여객)

양양발	하조대발	어성전발
07:10	07:30	07:45
09:00	09:20	09:35
11:20	11:40	11:55
15:30	15:50	16:05
17:00	17:20	17:35

양양 ◄► 남양리 (강원여객)

양양발	남양발
06:50	07:10
10:30	10:50
13:20	13:40
15:40	16:00
18:10	18:40

하조대 ◄► 주문진 (동진버스)

주문진발	하조대발
07:05	07:40
07:30	08:10
08:30	09:10
09:00	09:50
10:30	11:40
11:30	12:40
12:20	13:20
13:20	14:10
14:00	15:00
14:50	16:00
15:40	17:00
16:40	17:50
17:40	18:30
18:30	19:20
19:10	19:50

양양 ◄► 수산, 동호리(상운) (강원여객)

양양발	동호리발
07:40	08:05(상운발)
09:20	순환 (수산→손양면사무소)
10:50	11:15(상운발)
12:00	12:15(수산발)
13:40	순환 (손양면사무소→수산)
15:00	15:15(수산발)
16:20	순환 (수산→손양면사무소)
17:30	17:55(상운발)
18:30	18:55(상운발)

양양 ◄► 광산, 서선리 (강원여객)

양양발	광산발	서선발
07:00	07:15	
08:40	09:00	08:55
10:30	10:45	
11:30	11:45	
13:10	13:25	13:30
15:00	15:15	
17:50	18:05	18:10

양양 ◄► 석고, 상복, 둔전리 (강원여객)

양양발	상복발	둔전발
07:30 (화일경유)	08:05	
08:00 (속초행)	08:35	08:45
11:50 (7번국도 경유)	12:25	12:35
14:50 (화일경유)	15:25	
18:10 (속초발)	18:45	18:55

양양 ◄► 대치리 (강원여객)

양양발	대치리발
08:00	08:50
12:30	13:20
16:00	16:50

주문진 ◄► 축정자리 (동진버스)

주문진발	축정자리발
10:00	10:50
17:05	17:45

양양 ◄► 갑천리 (강원여객)

양양발	갑천발
07:00	07:50
09:50	10:40
14:00	14:50
17:20	18:10

양양 ◄► 적은, 갑곡리 (강원여객)

양양발	적은리발
08:30(낙산)	08:45
09:40(갑곡)	10:00
14:00(낙산)	14:15
18:00(갑곡)	18:20

주문진 ◄► 견불리 (동진버스)

주문진발	견불리발
11:25	12:10 (공휴일 12:00)
17:45	18:20 (공휴일 18:35)

주문진 ◄► 상월천 (동진버스)

주문진발	상월천발
09:20	09:50
13:40	14:40
16:15	16:50
18:55	19:40

강원여객 (양양) ☎671-3013, (속초) ☎633-2277 | 동진버스 ☎653-8011 | 양양군청(교통행정)☎670-2765 | 시간표는 도로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양↔속초 운행 안내

- 양양↔속초간 약10분 간격으로 운행, 노선번호 9번(영금정방면), 9-1번(의료원방면)
- 속초발 첫차 06:06, 막차 21:00 / 양양발 첫차 06:56, 막차 2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3.1운동 100주년 기념

양양4.4만세운동 재현행사

- 일 시 : 2019. 4. 4(목) 10:00 ~ 12:00
- 장 소 : 군청사거리, 주변도로
- 주 관 : 양양문화원
- 후 원 : 양양군
- 문 의 : 양양문화원 033)671-8762

*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양양군